

# 김윤동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 올리겠다”



**여기는 오키나와**  
한경국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을 가다

“남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팀 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죠.”  
2019 시즌을 앞두고 훈련 중인 KIA타이거즈 김윤동(27)의 각오다.  
김윤동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호랑이 군단의 승리에 일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윤동은 “스프링캠프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잘 훈련하도록 돕는 감독님을 비롯해 코칭스텝에게 감사하다. 작년보다 더 발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안고 훈련 중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윤동은 해가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프로 7년차 투수다.  
평균자책점이 2016시즌 5.43을 기록했지만, 2017시즌 4.59로 줄이더니 2018시즌에는 3.7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특히 2년 연속 80이닝을 소화하며 필승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한 자세로 올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  
김윤동은 “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형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한 자리를 맡아야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윤동은 캠프에 오기 전에 어깨 보강에 신경을 썼다. 모든 투수의 숙명인 것처럼 그의 어깨도 제대로 신경을 써줘야만 한 시즌을 잘 버틸 수 있다.  
김윤동은 “겨울에는 어깨에 집중했다. 신인 때는 몰랐던 부분이 야구를 점점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어깨다”며 “원래 상무시절

2년 연속 80이닝 소화... 필승조 역할 톡톡  
“보직 상관없어 1군에서 살아 남아야” 각오

에도 어깨 부담이 좀 있었다. 그때는 쉬면서 넘겼는데 요즘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 같다”며 웃어보였다.  
사실 김윤동은 지난 시즌 후사는란이 있었다. 연차에 비해 너무 많은 경기를 나갔다는 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다. 이때 김윤동은 오히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주변을 안정시켰다.  
김윤동은 “기록을 쌓으면 좋은 거다. 팀에 폐를 끼치는 것보다 승리에 보탬이 되면 뿌듯하다. 그래서 나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오래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 아프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윤동은 지난해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짚아 달라는 물음에 아쉬운 일

만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잘한 것보다 못한 점을 꼽으며 반성하며 성장하는 타입인 것이다.  
김윤동은 “안타를 맞거나 패전투수가 된 경기들만 기억에 남는다”며 “물론 다음날 되면 경기에 지장을 줄 만큼 심적으로 힘든 점은 없다. 다시 그런 실수를 안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뿐이다”고 전했다.  
그가 이번 캠프에서 이뤄야 할 목표는 뚜렷하다.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김윤동은 “2군에 있을 때는 1군에만 가면 좋을 거 같았는데, 막상 1군에 있으니 더 발전해야겠다고 욕심이 계속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1차 목표는 1군 엔트리 등록이다. 보직은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코치님들이 정말 문제다. 나는 다만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제 기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보직이나 구체적인 목표는 정하지는 않았다. 홀드를 목표로 잡았는데 추격조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경국 기자 hkk42@srb.co.kr

장지수 “앞으로 더 잘할게요”



KIA 신인 3인방 중 가장 마운드에 먼저 오른 선수는 장지수(사진)였다.  
김기훈, 홍원빈과 함께 이번 스프링캠프에 참여한 신인 장지수는 12일 차탄 구장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중간계투로 출전했다.  
0-5로 뒤진 6회 마운드에 오른 장지수는 볼넷과 피안타에 이은 보크로 1점을 내준 뒤 2루타를 맞아 또 한점을 허용했다.  
장지수는 “직구와 슬라이더만 던졌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마운드에 오른다면 다시는 안올 기회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던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인 김기훈, 1군에서 뛸 수 있겠는데요”

선동열 전 감독 KIA 캠프 방문 후배들 격려

“신인 김기훈, 당장 1군에서 뛸 수 있겠는데요?”  
선동열 전 감독이 KIA 타이거즈 캠프에 방문했다.  
선 감독은 KIA와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연습경기가 열리는 일본 오키나와 차탄 구장에 12일 찾아왔다.  
선 감독은 지난해 11월 대표팀 감독직에서 자진사퇴한 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자신이 몸 담았던 KIA와 주니치의 경기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오키나와에 방문하게 된 목적에 대해 선 감독은 “온나손 지역 명예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온나손이 초청을 해주어서 오게 됐다. 온 김에 구단을 둘러보고 있는데 반갑다”며 “특히 오늘은 KIA와 주니치가 경기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앞서 아카마에 가서 삼성을 먼저 보고 어제 (구시가와에 가서) 두산도 만났다”고 전했다.  
선 감독은 구단을 둘러 인사뿐만 아니라 영건들의 투구도 직접 살펴봤다.  
영건들 중 신인 김기훈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는 “주니치 선수들이 볼펜에서 던지는 것을 보고, KIA 선수들도 봤다”면서 “신인 김기훈이 인상적이었다. 고교 출신이나 던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당히 기대가 된다. 큰 문제없으면 1군에서도 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선 감독은 지난 시즌 전 삼성 하와이 캠프에서 신인 배영수(두산 베어스)의 투구를 보고 칭찬한 적이 있다. 이후 배영수는 선



일본 오키나와에서 인터뷰 중인 선동열 전 감독. 한경국 기자

감독의 칭찬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았다.  
선 감독은 캠프에서 투수들 구위와 밸런스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떠한 밸런스로 공을 던지느냐가 중요하다. 때문에 투수들의 하체 움직임에 주시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김기훈을 보니까 중심 이동이 잘 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류현진, MLB서 가장 뛰어난 3선발

다저스네이션, 올 시즌 긍정적 전망

LA 다저스 류현진(32)의 2019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다저스 소식을 다루는 매체인 다저스네이션은 12일(한국시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3선발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류현진이 지난해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류현진은 2018시즌 부상으로 15경기만 등판했지만 7승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다저스네이션은 먼저 다저스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 조 데이비스가 최근 트위터에 남긴 글을 언급했다.  
데이비스는 “류현진의 지난해는 정말 좋았다. 15경기에만 나왔지만,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에서도 사이영상 수상자 두 명만 그보다 더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고 올렸다. 두 명은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1.70), 블레이크 스넬(탬파베이 레이스·1.89)다.  
류현진의 성적도 세세하게 들여다 봤다. 68피안타, 15볼넷, 89탈삼진, 이닝당출루율(WHIP) 1.008 등을 짚었다.  
플타임을 소화하지 못해 “작은 표본”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평균자책점은 류현진의 경력 중 가장 낮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삼진수가 투구 이닝 보다 많았던 유일한 시즌”이라고 특기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82%이닝을 던지며 탈삼진 89개를 속아냈다. “다저스의 코칭 스태프는 더 많은 히트싱을 유도하기 위해 접근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현진이 이 결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적이 올 시즌 성적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류현진이 보여준 모습은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평가다.  
다저스네이션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WHIP을 기록하지는 못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3선발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

## 정현, 세계 20위 바실라슈빌리에 역전패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3·한국체대·세계랭킹 52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ABN 암로 월드 토너먼트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12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대회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20위 니콜로즈 바실라슈빌리(27·조지아)에 1-2(6-4 6-7(1-7) 2-6)로 역전패했다.  
또다시 1회전 탈락이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 올 시즌 4개 대회에 출전한 정현은 1월 벌어진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2회전 진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대회에서 모두 1회전

을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1월 벌어진 타타 오픈과 ASB 클래식에서 연달아 1세트 게임스코어 5-1로 앞서다가 역전을 허용해 0-2로 패배했다.  
이날은 1세트부터 게임스코어 1-4로 끌려갔던 정현은 내리 5게임에 따라 1세트를 가져왔다.  
정현은 2세트에서 게임스코어 3-5로 끌려가다 승부를 타이브레이크로 몰고 갔지만, 타이브레이크에서 맥이 무너졌다. 정현은 3세트에서도 흐름을 바꾸지 못한채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뉴스



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12일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 체육대회 개막식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 심석희 “역경 딛고 최선의 결과 냈다”

월드컵 대회 마치고 귀국

마음 고생을 딛고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출전을 강행했던 심석희(22·한국체대)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심석희는 12일 오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심석희는 심신이 지친 상태에 감기 증세까지 겹쳐 월드컵 대회에서 아쉬운 성적을 냈다. 월드컵 5, 6차 대회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 상무마차로 활약하던 심석희

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상습 폭행 여파로 올 시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 획득에 힘을 더한 심석희는 당시 500m 레이싱 도중 머리를 부딪혔고, 경기 직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바로 귀국했다. 이로 인해 월드컵 2차 대회에는 나서지 못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월드컵 3차 대회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해 여자 3000

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컵 3차 대회를 마치고 지난달 10일 귀국한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폭행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또 곧바로 조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심석희는 대표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월드컵 5, 6차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